

류현진, 오프시즌 FA시장 나올까

MLB.com, 이적 가능성 있는 13명 선정

“건강할 때 매우 효과적인 선수” 평가

2019 메이저리그 시즌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류현진(32·LA다저스)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3일(한국시간) 이번 시즌 후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 13명을 꼽았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커리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WAR)로 순위를 매겼고 류현진은 11번째로 언급됐다.

MLB.com은 “다저스가 2013년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류현진은 건강할 때 매우 효과적인 선수다. 이번 시즌에도 류현진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MLB.com은 “지난 시즌

후 류현진은 FA시장에 나서지 않고 다저스의 1년 퀄리파이잉 오퍼를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에는 (퀄리파이잉 오퍼는) 선택 사항이 아니지만 다저스와 류현진이 시즌 후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25경기에서 12승5패 평균자책점 2.35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다수 주춤했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사이영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시즌 후 류현진이 다저스와 다시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새롭게 출발할지는 미국 현지에서도 관심사다.

이외에도 MLB.com은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브렛 가르너(뉴욕 양키스), 아담 웨인라이



트(세인트루이스), 라이언 짐머맨(워싱턴), 매디슨 빔가너(샌프란시스코), 알렉스 고든(캔자스 시티), 앤서니 렌던(워싱턴), 제이슨 킵니스(클리블랜드), 호세 어브레우(시카고 화이트삭스), 폴 칼훈(LA 에인절스), 카일 김슨(미네소타), 잭 윌러(뉴욕 메츠) 등이 시즌 후 소속팀과 결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꼽혔다.

2010년 사이영상 수상자 에르난데스는 부상 등으로 최근 부진하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1승4패에 그치며 3시즌 연속 10승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MLB.com은 “에르난데스는 2020 시즌에도 뛰고 싶겠지만 그가 시애틀 또는 다른 팀에서 활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순천중앙초 축구부, 축구명문 전통 있다

마오기배 전국대회 우승·화랑대기 전국대회 준우승

순천중앙초등학교(교장 임택희) 축구부가 금년 3월 창원에서 열린 2019 마오기배 전국대회 우승과 8월 경주에서 열린 화랑대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축구명문학교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순천중앙초 축구부는 36년 전통을 이어오면서 각종대회 112개 대회 우승과 전 국가대표 주장 기성용(영국뉴캐슬), 허용준(포항), 이종호(J리그나가사키), 김영광(서울이랜드), 김동준(성남FC),

이슬찬(전남드래곤즈), 한찬희(전남드래곤즈), 이한샘(수원FC), 박준강(부산아이파크), 신진하(전남드래곤즈), 김민호(수원삼성), 김찬희(부천FC), 김민호(J리그간도스)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해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다시 한번 순천시 위상을 뒀다.

한편 순천 중앙초 임택희 교장은 축구부 전통 이어가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쌀딩크와 히딩크의 지략대결

박항서의 베트남 U-22팀, 중국과 평가전

베트남의 축구영웅으로 자리매김한 ‘쌀딩크’ 박항서 감독이 진짜 히딩크 감독과 벤치 싸움을 벌인다.

중국 U-22 축구대표팀과 베트남 U-22대표팀이 오는 8일 오후 6시50분(한국시간) 중국에서 평가전을 갖는다.

양국 대표팀 간의 A매치도 아니고 국제대회에서 격돌하는 것도 아닌 친선경기지만 양 팀의 사령탑 때문에 국내에서도 적잖은 관심이 향하고 있다. 베트남 U-22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으며 중국 U-22대표팀은 거스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두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대표팀의 사령탑(히딩크)과 수석코치(박항서)로 호흡을 맞추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첫 월드컵 4강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 이른바 ‘2002 한일 월드컵 주역



들의 지략 대결이 성사된 셈이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축구협회의 러브콜과 함께 베트남 A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함께 맡았다. 애초 부임할 때의 반응은 베트남 내에서도 미땀했으나 2018년 만기 힘든 성과를 거두며 승승장구했다.

박항서 리더십은 베트남은 물론 국내에서도 신드롬급 반향을 일으켰다. 히딩크에 빗대 ‘쌀딩크’라는 애교 섞인 수식어도 탄생했는데, 흥미롭게도 원조 히딩크와의 대결이 성사됐다.

우승컵 들고 금의환향 이정은6 “도쿄올림픽 꿈 생겼어요”



지난6월 US오픈 우승자인 이정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우승 트로피 투어 기자회견에서 트로피를 들고 미소짓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 우승컵을 들고 금의환향한 이정은(23·대방건설)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꿈이 생겼다”며 “이번 겨울 여는 때보다 혹독하게 훈련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정은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US여자오픈 우승 트로피 투어 행사에 참여해 US여자오픈 우승 소감을 비롯해 LPGA투어 입성 이후 근황을 전했다.

이정은의 영문 이름인 ‘Jeongeun Leej’가 새겨진 진품 트로피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로피를 바라보던 이정은은 “3개월이 지나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다시 봐도 멋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정은은 지난해 11월 LPGA투어 퀄리파이 스톤을 전체 1등으로 통과한 뒤 올해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다.

2019시즌 LPGA투어 19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 1회, 준우승 3회 포함 톱10에 9차례 드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신인상 레이스를 독주하고 있다.

첫 LPGA투어 우승은 메이저대회에서 나왔다.

지난 6월, 5대 메이저대회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서며 당당히 ‘메이저 퀸’에 등극했다.

이정은은 LPGA투어 입성 전 ‘신인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신인상 레이스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그는 그의 목표에 한걸음 다가서 있는 상태다.

이정은은 “시즌을 잘 마무리해서 나중에 신인상을 타게 된다면 영어로 소감을 말하고 싶다”며 웃었다.

데뷔 시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룬 이정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2일 자 기준 이정은의 여자골프 세계랭킹은 4위. 이기세대로면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이정은은 “올해 초까지 올림픽에 대한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예비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후 스위스에 있는 올림픽 박물관을 갔는데, 그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심장이 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겨울에는 더 혹독하게 훈련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꿈을 이루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대정원림
연돈숲정자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돈숲정자→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 →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